

#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 대법원, '국정농단·특활비' 관련 상고심서 대기업에 K스포츠 재단 출연 강요 혐의 국정원 특활비 받아 뇌물수수한 의혹도 파기환송돼 병합 심리...징역 20년 선고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와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

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무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뉴시스



김진욱·박법계 인사청문회조사법사위 통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와 박법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조사위원회를 의결했다.

##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법 개정 나선다

### 민주 김성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대표발의 운영자 적발 후 환수금 미납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 금지 행정처분 내려진 의료기관 양도·양수시 처분 승계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고 봤다.

김성주 의원은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해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



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도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뉴시스

## 이용호 의원,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법' 대표발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위협을 당하거나 곤욕을 치르는 일을 막기 위해 신고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4일 이 같은 취지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복의 목적으로 신고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에도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불이익조치 금지 등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규정 자체가 소극적인 데다가 현 실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실제로 아동학대 신고자가 학대 의심 부모 등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원을 노출하는 바람에 신고자가 해당 아동의 부모로부터 폭언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개정안 양 사건에서도 어린이집 교사들이 양부모의 거센 항의를 받은 이후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일조차 하지 못했다. /유호상 기자

김영병 의원, '1339'로

##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올해 사업 추진 방향

### 코로나 시대, 변화에 대응한 뉴딜 통한 활력 제고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국장 윤여일)은 14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책목표로는 ▲코로나 시대, 변화에 대응한 뉴딜사업을 통한 활력 제고 ▲도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 활성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여행환경 조성 ▲안전하고 활기찬 생활스포츠 향유 환경 조성 ▲전북자존의 시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의 세계화 실현을 통한 전북 위상 제고 등이 있다.

**디지털 뉴딜 성장기반  
융복합 콘텐츠 산업 활성화**

**안전하고 머물고 싶은  
전북 위한 관광 인프라 조성**

**2023년 아태마스터스  
성공개최 위해 체계적 준비**

**지역 역사·문화 재조명  
도민 자존의식 향상키로**

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조성 28개소, 특색있는 체육활동을 위한 소규모 체육관 등 시설 개보수에 17개를 추진한다.

**▲문화유산 분야**  
전북도는 자랑스런 전북 역사·문화 재조명으로 도민의 자존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전북학연연구원 내실화 운영 및 전라유학진흥원 건립(2023년 준공) 등 전북자존을 구현하며, 익산백제고도 르네상스를 위한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 등 총 253.5억원을 투자한다.  
전북기가 유적 고증심화와 활용을 위한 홍보관(장수기아사사관·기문기아)을 건립하고, 고고·역사학적인 연구 학술대회, 봉수왕국 한미당축제, 방송제작 등 홍보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창조적 활용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속 등재로 전북문화유산의 우수성 입증 및 유산분야 맞춤형 활용·홍보 강화로 등재효과를 제고한다.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디지털 뉴딜 성장기반, 융복합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북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블록체인기반 디지털 고품질 유류플랫폼 구축(80억), 디지털 문화유산 아트센터 조성(1.5억),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전시관 건립사업(453억) 등을 추진한다.

**▲여행체험 1번지 분야**  
대한민국 여행체험 1번지 실현을 위한 콘텐츠를 강화한다.  
이에, 코로나시대 언택트 관광자원 발굴 및 청정·안전 전북 여행환경을 조성해 관광객 유치를 추진한다.

**▲도립국악원**  
노후화된 청사를 철거하고 현 부지에 증축(23년 완공) 연수공간 확장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국악인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도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도내 방방곡곡 국악연수를 지속 진행한다.

또한, 지역특화 콘텐츠 창작(5개사업 78억),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3개사업 8억)으로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전북 대표영화제인 전주국제영화제(52억), 무주산골영화제(8.8억), 독립영화제(1억)를 지원하며, 영화영상 제작 기지화사업(3.79억), 주민시네마스쿨(2.69억) 지원으로 영화영상제작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1시·군 1대표 축제 및 시골마을 작은축제(22개), 관광벤처기업(3개)을 발굴해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MICE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안전하고 머물고 싶은 전북도를 위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자원개발 46개 사업 930억원(계속 28, 신규 18)을 추진하고, 전북도 대표관광지 육성(14개 지구 227억원)을 위한 120개 세부추진사업을 시·군별 성과평가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로 경쟁력 있는 거점 관광지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마당공연 4회, 도와 시·군 행사지원 및 소외계층 방문공연 20회, 시·군 기획공연 및 순회공연 등 총 30여회 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친환경 문화시설 확충으로 생활속 문화여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북을 상징하는 문화시설 건립에 본격 착수(대표도서관, 서예비엔날레전용관, 문화예술인회관)할 방침이다.

**▲체육정책 분야**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 야외정원 및 건물 리모델링을 2021년 8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노후화된 미술관의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한 창의적인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대표문화자산 한치의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살펴보는 특별기획전(8·11월), 찾아가는 미술관 기획전(10회)등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킬 계획이 다. /유호상 기자

또한, 도민의 문화생활과 밀접한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28개소를 확충·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술인 창작강화 및 지역·계층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주세계소리축제 20주년 서울특별공연을 개최하고, 세계서예비엔날레를 개최해 미래서예의 패러다임을 선도한다는 계획 이다.  
지역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지역·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및 예술인 복지정책을 강화한다.

생태체육지도자 배치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확대를 통해 도민 모두가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전북을 태권도시로 육성하고 성지화해 종주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전국규모 태권도대회(167회)를 열어 태권도 종주도의 자리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도는 도민이 건강하고 함께 누리는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스포츠 참여 증대를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16개소, 주민이 쉽

## 박법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약촌오거리 배상판결 환영"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총 16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판단이 나온 가운데, 박법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14일 오전 11시38분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이번 판결이 다소나마 억울한 옥살이를 10년 동안 한 피해자분께 위안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법무부가 그동안 기계적인 상소를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취지를 더욱 잘 살려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소송의 상대방 중 하나인 국가가 1심 판결에 항소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전담 피해자 최모(36)씨와 모친, 여동생이 국가와 당시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 반장 이모씨, 당시 불기소 처분한 검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뉴시스

## 강용구 도의원, 남원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신입생 환영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남원 2)은 남원 목철공예와 화장품 뷰티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가 남원에 유치돼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는 4년제로 야간수업이 진행되고, 캠퍼스 완공 전까지 남원시 평생학습관에서 강의가 이뤄진다.

졸업생은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학사학위를 준다.

강 의원은 "남원시가 지역과 밀접한 사업의 발전을 위해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왔다"며 "지난해 8월 전북대와 유치 협약 이후 올해 첫 신입생을 받게 된 것은 지역 내 목철공예와 화장품뷰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입학생을 위해 남원시가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면서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남원시민과 관련 사업 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성경찬 도의원, 한파 속 고창 곳곳서 현장 의정활동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 1)이 한파 속에도 고창군 곳곳을 누비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쳐 눈길을 끈다.

성경찬 의원은 지난 13일 오전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전북개발공사 안정수

본부장 등이 함께했다.

또, 성경찬 의원은 이날 오후에는 이번 한파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부안면 일대 승어 양식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승어 폐사로 피해를 입은 양식장에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동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